

# “전남 공공의료 인력 대란... 10년 내 응급의료 붕괴”

## 공중보건의 올해 50여명 감소 예상 병원장들 “특단의 대책 마련 시급”

전남도의 올해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배정 인원이 50여명 줄어들 예정이어서 의료공백 심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남도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전남지역에 배치된 공보의는 총 609명(의과 301명·치과 106명·한의과 202명)으로 전국의 18.4%를 차지한다.

이 중 548명은 공공보건기관에서 복무하고 있으며, 53명은 공공·의료기관, 8명은 병원선에 근무 중이다.

또 도서지역에 89명, 산간벽지 등에 23명의 공보의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도민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남도에 배치된 공보의는 1년차 258명, 2년차 177명, 복무 만료를 앞둔 3년차는 174명에 달한다.

이에 신규 배치 153명, 도간 이동 110명 등 올해 공보의 263명을 우선 배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공보의 병역자원이 급감해 도내 공보의 감소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공공의료 인력 공백으로 인해 10년 내 전남 농어촌 응급의료기관 대부분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도와 시의회가 도내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병원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은 우려를 쏟아냈다.

간담회에 참석한 병원장들은 “24시간 응급실 운영을 위한 의사를 구하지 못해 고령의 병원장들이 밤새 당직을 서며 환자를 돌보고 있는 데다 심각한 경영난으로 대출도 막혀 운영의 한계점에 도달했다”며 “공보의 지역응급의료기관 우선 배치와 의료인력 기숙사 확대 등 인력난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원을 호소했다.

전남도는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최선국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은 “의사 증원 문제도 진척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보의 감소까지 이어져 농어촌 응급의료기관뿐 아니라 공공의료 체계 전체를 흔들고 있다”면서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될 수 있도록 전남도와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인구 1만명당 의사 수가 17.5명(전국 21.8명)에 그친 데다 이마

저도 공보의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열악한 의료 환경을 드러내고 있다.

더욱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5.2%로 전국 18.0%보다 월등히 높고,

2019년 기준 보건기관 이용률은 36.8%로 전국 최고를 기록할 만큼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는 많지만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상급종합병원도 전무한 상황이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은 32개 병원에 307개 병상이 지정돼 있지만 22개 시·군 중 함평군과 화순군은 지정병원이 없는 실정이다. **최황지 기자 hwangji.choi@jnilbo.com**



‘반려나무 나눠주기’ 임택 광주 동구청장과 직원들이 21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제78회 식목일을 기념하는 ‘반려나무 나눠주기’ 행사에서 시민들에게 서향나무와 목수국을 나눠주고 있다. **김양배 기자**

# 시·도, 광주전남연구원 ‘분리의견’ 제출

## 이사회, 27일 시·도 의견 검토

광주시와 전남도가 광주전남연구원(광전연)의 재분리를 공식화한 가운데 이날 내 본격적인 분리 절차를 밟는다.

21일 광주시와 전남도는 전남 광전연 이사회에 ‘분리’ 의견을 각각 제출했다. 19명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오는 27일 회의를 열어 광주시와 전남도의 의견을 검토한다. 이사회 제적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분리’ 의견은 통과된다. 분리가 확정되면 광주시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며, 전남도는 기존 법인을 승계한 뒤 명칭을 변경한다.

지역의 싱크탱크는 각각 운영하는 것이

지역 발전전략 수립에 유리하다는 게 시도의 입장이다.

시·도는 광전연을 발전적으로 분리, 지역 미래비전과 분야별 발전 전략을 제시하는 전문기관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연구 등 연구원 분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을 극대화 한다는 것이다.

연구인력과 출연금을 단계적으로 확대·보완, 연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산재한 연구기관의 컨트롤타워로 만들어 나간다는 게 시·도의 복안이다.

시·도는 연구원 분리로 지역 여건·환경에 부합한 차별화 된 연구 활성화, 지도·감독 일원화에 따른 책임소재 명확화, 지

역 사회와의 상·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소신 있는 연구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도의 뜻대로 연구원이 분리되더라도 전략적 상생·협력이라는 과제는 남아 있다.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를 줄이고 인구 감소·농촌 소멸 등에 공동 대응, 지역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도의 정책적 상생·협력은 중요한 대목이다. 시공간적 분리에 따른 공동연구 기능의 약화로 자칫 상생과 협력, 소통과 통합의 가치가 훼손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광전연 연구원들도 “눈 앞의 공동위기에 광주와 전남은 따로 대응할 것인가”라

고 반문하며 “호남권 전역이 지방소멸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는데 광주와 전남이 따로 대응하는 것은 정책적인 퇴행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구과제가 아닌 행정구역 중심의 잦은 분리와 통합에 따른 소모적 논쟁, 연구원의 위상과 정체성 훼손, 이해득실에 따른 지역 갈등 등의 문제도 광주시와 전남도가 풀어야 할 과제다.

시·도 관계자들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독립적 연구를 통해 실질적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전연은 광주와 전남의 잠재력을

토대로 정책을 개발하고, 지역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연구기관이다. 광전연은 1991년 12월 전남발전연구원으로 태동을 알렸다. 1995년 6월 광전연으로 이름을 변경했다가 2007년 7월 전남발전연구원·광주발전연구원으로 각각 분리됐다. 2015년 9월 현재의 모습인 광전연으로 재통합됐다. 지난해 민선8기 출범과 동시에 광주와 전남에서 광전연 재분리 논의가 급부상했으며, 논란 속 광주시와 전남도는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쳐 재분리 의견으로 입장을 최종 정리했다.

**박상지 기자 sangji.park@jnilbo.com**

전남일보 인스타그램 @jnilbo  
 광주사람들 인스타그램 @peopleofwangju  
 스낵뉴스 인스타그램 @hiphot\_snacknews

**한정승인 공고**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심판**  
 사건번호 2022년1171 특별상속한정승인  
 사망자 박선준(580802-1\*\*\*\*\*)  
 최후주소 전남 완도군 금일읍 금일로 386-1(화목리)  
 위망 박선준 상속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 제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하였으므로 민법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23년 3월 22일  
 공고인: 조성애, 박동열, 박달희  
 한정승인 수리일: 2023년 3월 15일  
 공고기간: 2023. 3. 22. ~ 2023. 5. 21.

**드론타임 DRONE TIME**  
 고품질리티(4K) 저렴한 가격 드론 촬영 편집  
 스포츠행사/축제/산업현장/호텔/편선 학교/부동산광고·분양/지적도 선박특수촬영/생선시절/양식장 아파트/교회 웨딩/이벤트/(웨)드라마 등  
**드론타임 010-5681-8084**

**광고문의**  
 팩스 (062)519-0709  
 직통 (062)519-0710  
**全南日報**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돈**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받아 드립니다  
 빌려준 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10-5679-0990, 062)714-2846**

**봄에 떠나는 그립을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양쪽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양쪽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승선문의 061-834-3434, 예약센터 062-385-0515, 투어나우: 062-575-8019